휴거의 진실 (2)

신학박사 조 덕운

[창세기 5:21-24]에녹은 육십오 년을 살며 므두셀라를 낳았고, 22 므두셀라를 낳은 뒤 삼백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23 에녹의 전 생애는 삼백육십오 년이더라. 24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므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히브리서 11:5]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성경은 구약의 창세기에서,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므두셀라의 아버지이었던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던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으므로 이 땅에 그의 몸이 있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녹은 성경에 기록된 첫번째 휴거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때에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는지 밝히지 않지만, 에녹의 일생과 휴거 사건에 관한 세부 사항이 히브리 역사서인 야셀서 [Ancient Book of Jasher]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에녹의 승천 휴거에 관하여 공부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신약 교회의 휴거의 성격을 미리 파악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3. 에녹의 승천 휴거

가. 성경과 야셀서의 기록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휴거 사건에 대한 야셀서의 기록을 읽었고 이 기록에 근거하여 11 장 5 절을 기술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에녹의 휴거 사건 후에 사람들이 혹시나 그의 몸을 찾을까 하여 탐색을 하였다는 기록이 야셀서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에녹은 휴거 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고 [창 5:24]"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은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휴거하여 하늘로 옮기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입니다. 우리가 휴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에녹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를 옮기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에녹이 죽었다거나 그의 몸이 관찰자들이 보기에 갑작스런 변환의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에녹의 휴거 사건에 관한 야셀서의 기록을 모두 여기에 옮기기에는 분량이 많아 간단히 차례대로 일어난 일들을 아래에 요약합니다.

1)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에녹에게 나아와 에녹이 하나님의 길에 관하여 그들에게 교육하던 때에, 천사 한분이 하늘에서 와서 에녹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불러 그가 땅에서 사람들을 통치한 것과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치하도록 그를 불러 올리시기 원한다는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2) 에녹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지도하고 그들이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이 때에 하늘에서 에녹을 태우고 갈 말 한필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에녹을 대기합니다.
3) 약 80 만명의 사람들이 에녹과 함께 여행하여 제 칠일에 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따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4) 왕과 지도자들은 에녹이 휴거한 지점 주변의 땅을 파서 혹시나 당시에 함께 했던 백성중 누가 죽어서 묻혔는지, 에녹이 묻혔는지 탐색했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므로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에녹은 그의 생애 365 년에 이와 같이 하늘로 휴거되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모두 900 년 이상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와 같이 어찌 보면 그가 당시의 왕으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한참 활동하던 때에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천사가 전한 말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데려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서 우리는 휴거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 지상에서 성도들을 현명하게 기르치고 다스리는 주님의 종들은 휴거된 후에 하늘에 가서도 하늘 나라의 한 영역을 통치할 임직을 부여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충실하게 달란트를 불린 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도 이들이 상으로 도시들을 통치할 권한을 부여받을 것을 의미하신 것으로 에녹의 경우도 매우 특별하게 대홍수 전에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 *[누가복음 19:16-17]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므나로 십 므나를 벌었나이다, 하매17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열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나. 미리 알려진 사건

에녹의 휴거 사건은 천사의 개인적 통지에 의하여 에녹 스스로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야 할 것을 미리 말하였고 백성들은 이 소식을 받아들였고, 에녹은 자신이 하늘로 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승천하기까지 주어진 기간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관하여 교육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Left Behind" 영화에 보는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에녹의 휴거 사건을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예지했던 것은 앞서 본것과 같이 엘리야의 승천 휴거 사건과 주 예수님의 승천 휴거 사건과 동일합니다. 이 세가지 휴거 사건은 모두 휴거될 본인과 제자들이 미리 알고 준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방주를 완성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서 살 준비를 갖추고 한쌍씩 오게되는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해 들이는 작업을 하게 하신 후에 그들 모두를 방주 안에 두시고 방주 밖에서 출입문을 닫으심으로써 홍수의 시작 준비를 마무리하신 것과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홍수가 임박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어느날 홍수가 시작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에녹 역시 칠일 동안 백성들과 여행을 하고 있었지만 어느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매우 임박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날에 다가올 우리의 휴거 역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겨질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 지인들에게 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전도할 마지막 며칠의 시간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배려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롯의 사위들이 그 도시의 임박한 멸망을 믿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호소를 무시하고 경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어디로 여행 갔겠지"라고 단순하게 무시할 것입니다.

다. 많은 증인들

예수님의 승천은 최소한 11 명의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증인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휴거 사건은 엘리사와 다른 제자들 50 여명이 눈으로 보고 증인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에녹의 경우에는 무려 80 만여명이 그와 함께 승천 휴거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인 에녹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들에게 '너희가 죽을지 모르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계속 그와 함께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녹이 하늘에서 보내온 마차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된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지들이나 지인들이 단지 우리가 휴거될 것이라는 말에 근거하여 카메라를 들고 우리의 휴거 모습을 촬영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휴거 사건을 온 세계의 떠들석한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모든 소셜 네트웍이 휴거 광경들을 올린 메시지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며 온갖 악담과 헛된 루머들을 확산시킬 것이며, 빅텍들은 휴거 사건들을 진실로 표현하는 포스팅들을 삭제하고 금지 조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사후 검증

에녹의 휴거 후에 땅에 남아 있던 왕과 지도자들은 에녹이 휴거한 지점 주변의 땅을 파서 혹시나 당시에 함께 했던 백성중 누가 죽어서 묻혔는지, 에녹이 묻혔는지 탐색했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므로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려 80 만명의 군중이 몰려서 그들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 에녹의 휴거 광경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지만, "혹시나 올라가다 중력에 이끌려 땅으로 떨어졌을까" 하는 믿지 않는 마음, 아니면 "우리가 헛것을 보았고 조작된 이미지를 보았을거야"라는 잘못된 생각에 끌려서 그들은 주변의 땅을 파고 탐색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휴거 때에도 그 예정된 사건이 며칠 전에 미리 알려질 것이므로 수 많은 군중이 각 지방별로 휴거가 일어나기로 예정된 스테이엄이나 광장 등에 모여서 참 크리스챤들이 들려서 구름위로 휴거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의 제자들은 헛된 소문들을 퍼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임 당했습니다. 그들은 외계인들이 와서 그들의 우주선 안으로 납치 된 것입니다" 또는 "휴거의 모습은 인공 지능에 의하여 간교히 조작된 가상 이미지이며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크리스챤들이 미리 짜고서 이런 속임수를 쓴 것이며,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되돌아 올 것입니다" 등의 헛된 루머와 소위 전문가적 판단을 주요 티비마다 매일 반복하여 방영함으로써 사람들을 현혹시킬 것입니다. 거짓 미디어는 심지어 휴거

되었다가 되돌아 왔다는 사람의 거짓 간증을 인터뷰 기사로 방영함으로써 그들의 거짓 현혹 전략에 신빙성을 더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진실합니다.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고, 번복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구름 위로 와서 참된 죽은 신자들과 살아있는 신자들을 모두 구름위로 불러 모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주선이나 인공 지능이 필요 없고 마치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그것들을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미리 말씀 해주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본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휴거의 진실성과 사실성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려 할 것이지만 여러분의 눈으로 본 휴거의 사실을 부인하려 함은 손 바닥으로 밝은 태양 빛을 가리려고 하는 노력처럼 헛된 일일 것입니다.

4. 휴거에 관한 오해

우리는 지난 2 회에 걸쳐서 예수님, 대언자 엘리야, 그리고 대홍수 전의 통치자 에녹, 이 세분이 땅에서 하늘로 휴거되었던 기록을 살펴보았고, 그로부터 앞으로 있을 신약 교회의 휴거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휴거에 관하여 갖고 있는 옳지 않은 개념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휴거에 관한 오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탐구해 보기로 합니다.

많은 사람이 휴거에 관하여 생각할 때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눈 깜작할 순간에 변화되어 구름 속을 채여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되는 이벤트라는 소위 '순간적 휴거'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도 약 1 년전부터 이 휴거의 성격에 관하여 깊히 공부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과, 팀 라하예 목사와 제리 젠킨스가 공저한 'Left Behind' 책 시리즈를 읽고 비디오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휴거는 당연히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휴거에 대하여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묵상했을 때에 나는 이 '순간적 휴거'의 개념이 매우 비성경적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라하예와 젠킨스는 그들의 책과 영화로 큰 수입을 벌었지만, 사실 그들은 비성경적인 휴거 개념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전혀 옳지 않은 생각을 심어주면서 폭발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 순간적 휴거의 개념이 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살펴 보기로 합니다.

가. 순간적 휴거는 과거에 일어난 적이 없는 휴거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지난 2 회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 알게된 사실은 예수님의 휴거, 대언자 엘리야의 휴거, 그리고 에녹의 휴거 사건들 모두의 경우에 그분들이 휴거될 것임은 본인들과 가까운 제자들이 미리 수일 전에 알고 있어서 미리 준비하였던 사건들이었읍니다. 그리하여 세분 모두 제자들과 함께 휴거 전에 며칠간의 여행을 하셨고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라 가는 모습도 순간적이 아니고 적어도 1 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에 그들을 떠나서 옷을 입은 채로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그들 눈으로 직접 봄으로써 나중에 이를

증언하고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결코 라하예의 책이나 비디오처럼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알릴 수도 없이 깜짝할 사이에 순간적으로 휴거되는 사건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휴거 때에 먼저 무덤 속에 죽어 있는 신자들이 부활되어 공중으로 올려지고, 그 후에 땅에 살아 있는 참된 신자들이 들려 올려질 것인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고 부활의 몸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설명하였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름위로 올려지리라"는 표현이나 그러한 휴거의 형태를 시사하는 어떤 표현도 없음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였으므로 휴거의 이적이 진행되는 동안에 천사들이 몇번에 걸쳐 나팔을 불러서 온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번째 나팔은 아마도 곧 있을 휴거로 그들을 불러 미리 준비하게 하고, 두번째 나팔은 그들을 일정한 장소들에 집합시키고, 마지막 나팔이 불때에 죽은 신도들이 부활하며 또한 살아있는 신도들이 구름 위로 들어 올려지며 이 때에 순간적으로 그들의 몸이 육신적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추측은 이미 살펴본 세 건의 휴거의 모습과 다음 사도 바울의 예언을 종합하여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고린도전서 15:49-53]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50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도 바울이 두번째로 휴거에 관하여 기술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예언을 살펴 보아도 우리는 '순간적 휴거'의 표현을 찾을 수 없습니다.

> *[데살로니가전서 4:14-17]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을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순간적 휴거'의 의미를 전혀 찾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휴거된 세분의 휴거 광경은 모두 순간적인 휴거가 아니고 서서히 구름 속으로 들리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통지되며, 미리 준비할 기간이 주어지는, 수일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일 것입니다.

나. 순간적 휴거는 온 세상에 커다란 재앙을 가져올 사건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라하예의 책을 보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발생한 온 세계 수억명의 크리스챤들의 휴거로 인하여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항공기를 조종하던 조종사들이 휴거되니 항공기들이 추락하여

수없이 많은 승객들이 죽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수 많은 크리스챤들의 휴거로 수 없이 많은 차량 사고로 엄청난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묘사합니다. 그 외에도 수 많은 건물과 국가 및 지역사회 시설들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비신자들이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고 온 세상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대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세가지 성경에 기록된 휴거 사건에서 이러한 인적, 물적 피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에녹의 경우에 보면 에녹이 휴거된 후에 지도자들이 걱정하기를 그 당시에 에녹 주변에 무려 80 만명의 인파가 몰려 있었으므로 혹시 그 중에 인명 사고가 발행했을까 하여 사건 주변의 땅을 파서 죽은 시체가 있는가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에셀서에는 그들이 어떠한 죽거나 다친 사람을 찾지 못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하시는 일에 이 세상에 피해를 남기는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휴거로 인한 대재앙의 묘사는 참으로 잘못된 표현으로서 저자인 라하예 목사의 성경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오류입니다.

다. 순간적 휴거는 휴거된 크리스챤들에게 오명을 남기는 잘못된 휴거의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 하던 중에 항공기 조종사들이 모두 휴거되어 추락하여서 부모님 모두 사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휴거된 기장과 부기장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챤들로서 하늘로 휴거되어 갔던 사실이 여러분의 가정에 커다란 재앙을 가져온 원인이므로 그들을 매우 원망하고 크리스챤들의 휴거에 대하여 악담을 할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커다란 휴거 사건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미움과 원망을 듣게 되도록 하실까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아닙니다. 따라서, 갑작스런 순간적인 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항공기를 조종하던 크리스챤 조종사는 천사들의 첫번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을 초자연적으로 듣게 되고 휴거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긴급한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항공기를 안전하게 조종하여 인근 공항에 착륙시키고, 항공사에 자신이 이제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집으로 속히 돌아가 가족들에게 통보하며 기도하는 심령으로 휴거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지정된 장소로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이동할 것입니다. 이 기간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긴급하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잘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는 도시의 스테이엄이나 들판 등 천사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불신자 가족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빠가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그들이 서 있는 땅을 떠나 하늘로 올려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참으로 크게 놀라며 주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실을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잘못된 휴거에 대한 개념을 버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 소망인 휴거의 날을 경건함과 진실한 기대감으로 대기하면서, 매일 매일을 충실하게 선한 언행으로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가능한대로 복음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전하여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휴거에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멘.